익산시, 힐링 공간 '수직정원' 확대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스쿨팜·주말가족농장도 운영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된 수직정원. 〈익산시 제공〉

익산시가 도심 속 쾌적한 환경 조성과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한 '수직정원'을 확대한다.

수직정원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도시농업 활성화로 시민들에게 휴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다.

수직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선정을 통해 추진된다.

시는 올해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직정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스쿨팜, 도시민의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주말가족농장, 노인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수직정원은 식물이 건물 외부나 내부 벽면에 수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이 정원은 좁은 공간에 설치 가능하고 미세먼지 흡착·공기정화·가습 등의 효과가 있어 코로나로 인해 실내생활이 많아진 도시민에게 각광받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농식품부의 공영도시농업농장, 실내식물 조경 시설 등 2개 유형의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600만원을 투입해 주말가족농장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수직정원, 다양한 식물을 활용한 휴게공간 등을 조성한 바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시농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남원시, 춘향제 개막·어린이날 광한루원 무료

남원시가 제92회 춘향제를 오는 5월 4일터 8일까지 광한루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다시, 사랑'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춘향제향, 춘향선발대회, 삼도 농악한마당, 한복 패션쇼, 뮤지컬 춘향, 심야콘서트 등 행사가 펼쳐진다.

시는 어린이날과 개막식 당일에 광한루원을 무료 개방한다.

또 제92회 춘향제 기간 무료 개방일을 제외한 행사기간 중에 광한루원 성인 입장료 3000원을 실제 결제한 경우 1000원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음식점, 상가, 숙박시설 등 가맹점(3680개)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축제는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지역의 든든한 효자"라며 "제92회 춘향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한루원 개방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순창군 54억 투입 청년 창업실험 플랫폼 조성

순창군이 청년 창업실험 플랫폼 조성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순창군은 54억원을 투입해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청년 창업실험 플랫폼을 조성하고 있다.

이 공간에는 푸드테크 기반 교육·제조 공간, 공유주방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층에는 공유오피스, 공유회의실과 방송 스튜디오 등이 조성된다.

부속시설에는 문화콘텐츠 제작 공간 1동, 생활목공 교육공간 1동이 마련된다.

본동 1층의 제조 공간 및 공유주방의 기반 시설 등은 오는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군은 하반기 부속시설 2동의 공간 조성을 마무리하고 청년 기반 운영 준비 전문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운영을 위한 세부 매뉴얼을 구축할 방침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청년 창업실험 플랫폼이 청년 창업의 꿈을 실현하는 중심이자 순창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고창갯벌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 서식 확인

둥지 2개·산란 관찰

고창갯벌서 확인된 검은머리물떼새.

고창갯벌에서 검은머리물떼새(천연기념물 제326호)가 둥지를 틀고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은머리물떼새는 2개의 둥지와 산란이 관찰됐고, 암수로 추정되는 검은머리물떼새 5쌍이 둥지 주변을 경계하는 것이 목격됐다.

고창군은 검은머리물떼새 가족의 안전한 번식과 서식지 훼손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검은머리물떼새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NT(준위협)등급 취약종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내 서해안의 일부 섬이나 내륙지역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안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개체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검은머리물떼새는 국내 번식지와 번식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고창갯벌은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로에서 핵심 기착지로, 지난해 7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또 전세계 1종 1속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 황해 고유종인 범게를 비롯하여 적색목록 위기종인 황새가 서식하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물새 90종과 대형저서생물 255종이 서식하며, 염생식물 26종이 있다.

나철주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장은 "매년 찾아오는 철새는 갯벌에 서식하는 갯지렁이류, 고둥류 등 저서생물로부터 에너지를 보충하기에 갯벌 건강성 및 생물다양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며 "각국 사례와 관계 전문가의 노하우를 공유해 고창갯벌의 철새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과 주택. 〈정읍시 제공〉

정읍시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10세대 모집

정읍시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읍 정착을 위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읍시는 구룡동 일원에 총사업비 26억원을 들여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을 조성했다.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은 1㏊ 면적에 생활동 8동 10가구, 농기구 공동창고 1동, 실습농장 10구획을 갖췄다.

이에 정읍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가족 실습농장 거주시설에 입주해 영농체험교육과 실용 교육(농촌 생활 적응 교육)을 이수할 입교생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모집 세대는 2인 이상 가족 단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로 총 10세대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로 이주해 귀농을 희망하거나 귀농 의지가 강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정읍시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인 사람이어야 한다.

선정된 입교자는 세대별 생활 주택과 실습농장 230㎡를 포함해 월 17만9000원부터 20만7000원까지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동 주택은 투룸형 단독주택이며, TV와 냉장고, 세탁기, 밥솥, 인덕션, 인터넷 등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가족 실습농장에 거주하는 입교자는 8개월간 생활동에서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개인별 실습농장에서 영농체험과 실용 교육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적응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도시민들에게 정주 여건과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비귀농·귀촌인의 정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군산시, 거리두기 해제에 관광 안내 전면 재개

군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

군산시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제외한 전국 사적모임 인원 및 운영 시간, 집회 및 행사 인원 등 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시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해설사 운영지침 일부 적용 유예에 따라 관광 안내 및 해설 서비스를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계도 활동 위주로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옛 시청광장에 위치한 시간여행마을 관광안내소〈사진〉 등 관광안내소 8개소를 부분적으로 운영해 왔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관광안내소 8개소를 전면 개방하고, 거리두기 홍보·계도 활동을 수행하던 문화관광해설사 39명도 관광객 대상 해설업무를 전면 재개한다.

이에 따라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시청 문화관광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여행 해설을 신청하는 경우, 현장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정귀영 군산시 관광진흥과장은 "그간 부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관광 해설의 전면 재개에 따라 단체 관광객은 물론 소규모 개별 관광객들의 관광 해설에 따른 관광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